

“종목보다 시장”... 변동성 시대 ‘패시브 투자’가 해법



1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 열린 금융경제 강좌에서 김학균 선생은 '국제 경제와 증권시장'을 주제로 강연했다.

■ 한은 광주전남본부, 김학균 센터장 초청 올해 첫 강좌

우량주 등 특정종목 집중 투자 리스크 지적 미국도 약세 지속...장기적 분산 투자 강조

“개별 종목이 아닌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투자해야 합니다.”

1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 열린 금융경제 강좌에서 김학균 선생은 '국제 경제와 증권시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현재의 불안한 경제 환경 속 투자 전략의 핵심으로 '패시브 투자'를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최근 투자 환경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1980년대 이후 이어진 저물기·저금리 시대는

중국의 저임금 생산체제와 글로벌화에 기반한 '예외적 시기'였지만, 최근 3~4년 사이 이러한 구조가 약화하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동 전쟁 장기화는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핵심 변수로 지목됐다.

그는 “전쟁은 단순히 해당 지역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을 통해 전 세계에 영향을 준다”며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변동이 투자 환경을 크게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실물 경제는 둔화한 반면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실물 경제를 움직이는 자금보다 자산시장에 유입된 유동성이 더 많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현상의 경우에도 대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설비투자에 간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설비투자는 공급과잉으로 귀결되고 이익은 급감해 후에 주가조정이 올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때문에 PER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메모리 업황이 둔화할 경우 삼성전자 주가조정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개별 기업을 선별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산업 구조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기

업 실적 변동성이 커지면서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할 경우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우량주 장기투자가 항상 정답이라는 보장은 없다”며 “과거 다우지수 구성 종목들에 단일 투자했다더라도 현재 지수 상승률과 같은 성과를 얻기는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미국 시장은 주주환원보다 투자자 중요한 시기”라며 “배당금을 높여 주가를 끌어올렸던 미국 시장의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실패의 원인으로서는 ‘인지적 편향’을 지목했다. 현재의 경험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투자 판단을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센터장은 장기적인 시각

에서 분산 투자하는 패시브 투자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매매를 줄이고 시장 성장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국 투자 성과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자금으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 등 단기 변수로 시장이 흔들릴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투자 방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무엇을 살 것인가’보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센터장은 “장기적으로 미국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연평균 수익률은 5% 수준에 그친다”며 “단기 수익보다 장기 복리 효과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세계김치연구소, 김치 리더스 아카데미 개설

30일까지 교육생 모집...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

세계김치연구소와 광주시는 김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6년 김치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오는 30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김치 리더스 아카데미'는 김치 제조와 품질관리, 산업 동향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전문 과정으로, 지난 2020년 개설 이후 현재까지 11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김치 제조업체 종사자 등 관련 분야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 교육으로 운영돼 왔다. 올해 교육은 다음달 7일부터 12주간 진행되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김치의 역사와 문화, 발효식품으로서의 김치와 종균에 대한 이해, 제조과정 및 품질관리, 김치산업 동향과 관련 법규, 세계 발효식품과의 비교, 전통 김치 제조 실습, 품질 분석 및 관능평가 등이다.

강사진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인 이아현·백정자를 비롯해 사찰음식 전문가 정관스님, 미쉐린 스타 셰프 조희숙, 그리고 세계김치연구소 연구진 등이 참여해 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한층 강화했다.

최근 김치는 건강식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해외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 식이저침에 발효식품이 포함되는 등 식생활 변화 속에서 김치의 활용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수출 증가와 시장 확대가 이어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제품 개발과 품질관리, 안전 기준 대응 등 산업 전반에서 전문 인력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아카데미는 세계김치연구소가 축적해온 과학적 연구 성과와 김치 명인들의 전통 제조 기술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생들은 김치를 단순한 식품을 넘어 과학·문화·산업이 융합된 복합 자산으로 이해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민 세계김치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김치 리더스 아카데미는 김치 문화의 가치를 계승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김치를 과학과 산업, 문화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수협, 연계형 비대면 적금 'Sh모아링적금'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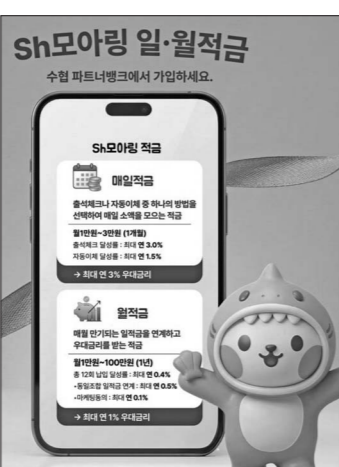
하루 1만~3만원 소액 적금...최고 연 6% 금리 혜택 제공

수협중앙회는 금융권 최초의 연계형 비대면 전용 상품인 'Sh모아링적금'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Sh모아링적금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매일 소액을 간편하게 저축하고, 만기 시 이를 다시 월 단위 적금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 상품은 운용 방식에 따라 일적금과 월적금으로 나뉜다. 일적금은 하루 1만~3만원을 1개월 동안 납입하는 단기 상품으로, 고객은 출석 체크를 통한 직접 이체(최대 3%) 또는 자동이체(최대 1.5%) 가운데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본 금리(조합별 상이)를 포함하면 최고 연 6%(세전) 수준의 이자 혜택이 가능하다. 단순한 저축을 넘어 일상 속에서 '모으는 재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월적금은 매일 1만~10만원까지 1년



간 납입하는 구조다. 특히 일적금 만기 자금을 연계해 납입할 경우 0.5%의 우대금리가 추가로 제공된다.

여기에 납입 횟수에 따라 최대 0.4%, 마케팅 동의 시 0.1%를 더해 최대 1%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4%(세전)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본 금리는 일적금과 동일하게 조합별로 다르다.

수협중앙회는 신상품 출시를 기념해 4월 한 달간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스로트 시그니얼 속박권(3명) 트로트 라세느 식사권 2매(10명) 스타벅스 1만원권(100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협 상호금융 관계자는 “적금 가입을 통해 풍성한 경품 행운까지 가져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어촌공사 '대표 통수식'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경기 안성에 위치한 고삼저수지에서 '2026년 대표 통수식'을 개최하고, 안전 영농과 풍년을 기원하며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의지를 다졌 다. 이날 행사에는 김인중 시장을 비롯해 윤종근 국회의원, 김보라 안성시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과 농업인 단체장, 지역 농업인들이 참석했다.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전남 청년농 생산 '무농약 바나나' 본격 출하

신안 '1004섬바나나' 학교급식·대형 유통망 안착 기대

전남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무농약 인증 바나나가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들어갔다. 수입 과일 중심이던 바나나 시장에 국산 친환경 농산물이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남도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신안군에서 청년농업인이 재배한 무농약 바나나를 본격 출하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신안섬바나나사회적협동조합에 따르면 도초·비금·팔금 등 3개 섬에서 청년농업인 24명이 총 5ha 규모로 바나나를 재배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196t에 이른다. 국내 최대 수준의 생산 기반이다.

이들은 2024년 9월부터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재배에 착수해 올해 6월

무농약 인증을 획득했다. 선별장과 저온 저장·유통시설까지 갖추면서 신선도 유지와 품질 관리 체계를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다.

출하된 바나나는 '1004섬바나나' 브랜드로 판매된다. 지난해 12월 첫 수확 이후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급식에 공급되고 있으며, 이마트와 백화점 등 전문 유통망으로 판매처를 넓혀가고 있다.

판로는 수도권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는

오는 5월부터 경기·광주 지역에 월 10t 규모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를 대상으로 판촉도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공공급식과 연계한 안정적 수요 확보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생산 초기 단계에서 가격과 물량을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시장 안착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 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유통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공공급식 연계를 확대하고 있다”며 “'1004섬바나나'가 품질과 안전성을 동시에 갖춘 지역 대표 농산물로 자리 잡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농어촌공사, AI 기반 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20억 투입...보성 등 전남·경북 배수장 59개소에 우선 도입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기후 변화로 일상화된 극한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수장 운영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배수장 운영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공사는 그동안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을 통해 재난 대응력을 높여왔다. 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신 장치 등을 설치하고 원격 제어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계속·제어하며 재난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극한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보다 세밀한 대응이 필요해졌다.

기상청이 발간한 '우리나라 113년 기후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시간당 최대 강수량이 50mm를 넘는 극한호우 발생 일수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원격 제어를 넘어, 데이

터 기반의 정밀 예측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공사는 2025년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을 고도화해 '배수장 운영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배수장 운영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재난 대응 체계다. 강우량, 수위·유속 등 첨단 계속 설비를 확충하고, 실시간 데이터와 과거 운영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최적의 배수펌프 가동 시점을 도출한다.

시스템이 적용되면 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공지능이 기상 상황과 하천 수위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현장 담당자에게 적정 가동 시점을 제시하면, 담당자는 이를 토대로

수문 개폐와 펌프 가동 여부를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경지 침수와 인명피해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배수장을 효율적으로 가동해 설비 과부하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펌프 고장 위험이 줄어들어 연이은 집중호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올해 59개 배수장에 시스템을 우선 구축할 계획이다. 국비 20억원을 투입해 전남(보성, 장흥 등 37개소)과 경북(예천, 경산 등 22개소) 지역에 우선 도입하고, 향후 시스템의 전국 확대와 인공지능 모델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향후 권역 단위 재해시각 간 상호 연계 운영으로 지능형 재난 관리 체계를 확고히 다져, 농업인이 안전하게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원현 기자 pose007@gwangnam.co.kr

콘텐츠진흥원-농협은행 대출 이자 지원 업무협약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최근 농협은행과 K-콘텐츠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문화콘텐츠기업 이자 지원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콘텐츠기업 이자지원 지원' 사업은 제작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콘텐츠 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을 최대 2.5%p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들은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협약보증서'를 기반으로, 대출 이자를 지원받아 원활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5개 기관은 향후 3년간 각자의 전문 역량을 활용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농협은행은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금리보다 2.5%p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한다.

나주·조원현 기자 pose007@gwangnam.co.kr